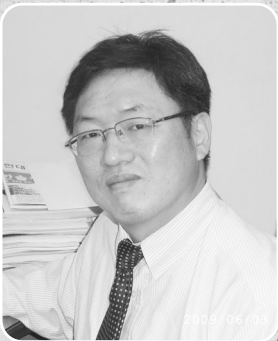


FTA와 양계산업

1990년대 이후 시작된 FTA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소 늦은 2003년부터 시작(始作)되었으나 지금까지 미국, EU, ASEAN의 3개 경제블록 모두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2014년 1월 현재 총 47개국과 9건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최근에는 호주와 FTA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FTA체결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경쟁력이 우위있는 산업은 환영하는 반면 경쟁력이 낮아 사업을 접어야 하는 품목도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분석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FTA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할 당시 FTA상대국과의 수출비중은 미미하였으나 이후 ASEAN,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FTA교역비중은 2012년 교역액 기준 수출은 41.5%, 수입은 33.9%에 이르고 있다. 교역량으로 볼 때 FTA체결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FTA추진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경쟁력이 낮은 축산분야 및 농업분야는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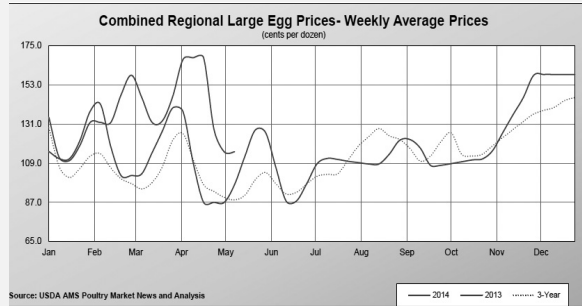
김 동 기
한국양계농협 상무
/본지 편집위원

표 1. 국가별 FTA 양허내역

구분	품 목	양허유형
한미 FTA	계란(41.6%/TRQ 30%) 전란액 (27%)	15년 철폐
	난황(27%)	12년 철폐
	종란(27%)	10년 철폐
	난백(8%)	5년 철폐
한EU FTA	계란(41.6%/TRQ 30%) 전란액 (27%)	15년 철폐
	난황(27%)	13년 철폐
한칠레 FTA	종계	즉시철폐
	종란(27%)	10년 철폐
	조란	10년 철폐
한페루 FTA	난황(27%)	12년 철폐

가 예상되고 있다.

한-EU,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소고기와 EU산 돼지고기 등의 관세인하와 적극적인 홍보로 주요 수입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물시장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보다는 FTA 상대국의 수급상황, 가격변동, 국내 수급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FTA의 체결에 따른 우리 양계산물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 미국산 통닭(냉동 기타 제외) 및 냉동 가슴살과 날개는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닭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EU닭고기 도 이와 유사하게 10~13년으로 관세가 철폐하게 된다. 계란의 경우도 미국산 난백은 11년 발효당시 8%에서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난황도 41.6%부터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되며 조란도 41.6%부터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EU계란도 미국산 계란과 유사하게 27%~41.6%의 관세가 10~1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그림 1〉 미국 계란가격 동향(대란 57~64g 기준)

(표1 참조).

물론 FTA상대국의 양계산물 생산량과 국내 소비형태 그리고 수입단가에 따라 닭고기나 계란수입량이 달라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원가가 높아 미국산 또는 브라질산 닭고기나 계란이 수입될 잠재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되나 이로 인한 국내 양계산업의 피해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된다.

한편, 미국산 계란의 경우 계란 개당 생산원가는 70~80원 정도이며 연중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대란(57g 이상)기준 개당 가격이 연중 최저 80원에서 최고 155원의 변동폭을 가지는 상황을 볼 때 해상운송료를 고려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입될 가능성을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 계란생산원가를 경쟁국과 비교하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 자유화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현대화시설 지원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내실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가축비, 질병관리비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양계**